

『소학』의 修養論과 治癒的 讀法の 모색 - 兒童教育을 중심으로 -

전 연 우*

< 目 次 >

- | | |
|-----------------------------------|------------------------------------|
| I. 서론 : 고전의 현대적 계승은 가능한가 | III. 『小學』과 아동교육과의 만남: 治癒的 讀法の 모색 |
| II. 『小學』의 수용과 수양론으로의 定向 | 1. 『소학』이 아동교육에 주는 시사점: 修身의 의미 |
| 1. 『소학』의 수용과 조선사회의 변화: 유교문명화 | 2. 『소학』의 교육내용과 현대 아동교육의 거리: 綱目과 節目 |
| 2. 『소학』의 보급과 일상적 수양으로의 轉移: 개체의 주목 | 3. 『소학』의 치유적 독법: 倫理를 넘어선 지점의 확보 |
| 3. 『소학』의 확산과 실천적 수양론의 대두: 실천윤리 | IV. 결론을 대신하여: 『소학』을 통한 인성교육의 가능성 |

< 국문 초록 >

이 논문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된다. 고전의 현대적 계승은 가능한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이로부터 시작하여 이 글은 『소학』의 어떤 점이 현대 아동교육의 인성 측면에 활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볼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영진사이버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mhsy6867@hanmail.net

『소학』이 조선사회에 수용된 것은 유교적 문명의 도입 혹은 성숙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소학』은 조선 지식인의 일상적 삶의 수양서로서 받아들여졌고, 이를 통해 거대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개체적 삶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소학』 속에서 실천적 수양론을 추출하였고, 이를 통해 실천윤리를 제기하였다. 이는 『소학』이 현대 아동교육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제공한다.

즉 현대 아동교육의 시작점이 일상적 기본생활습관의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소학』이 지닌 수신서로서의 성격과 만나면서, 새로운 시대적 의미가 부여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소학』의 교육내용들, 특히 「敬身」 및 「明倫」의 일부는 현대 아동교육에서 추구하는 기본생활교육내용과 공유되는 점이 많다. 이 지점에서 『소학』은 지금까지 경학의 磁場 안에서 읽어왔던 것과는 다르게 볼 것이 요구된다. 즉 그동안 윤리의 제시란 점에서 읽었다면, 이제 자존감의 확보를 위한 새로운 텍스트로 읽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治癒的 讀法'으로 부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학』으로부터 자기조절을 통한 자아의 확립과 인간관계의 정립을 통한 사회화를 도모하는 논지를 읽어낼 수 있다. 이는 아직은 시론의 단계에 있으며, 차후 더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주제어] 소학, 수양론, 수신, 치유적 독법, 자존감, 자기조절, 관계의 정립.

I. 서론 : 고전의 현대적 계승은 가능한가

'고전의 현대적 계승은 가능한가?' 갑작스런 질문으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자. 이 질문은 한문고전이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과연 그 고전이 현대에 살아날 수 있다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아니, 어떻게 한문고전을 되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물음들과 닿아있다. 사실 이 질문은 이미 식상할 만큼 흔한 질문이라서 반복하기에도 민망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 자산을 소홀히 한 채 교육과 연구의 현장에서 고전을 운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위와 같이 질문을 재차 던져본다. 이에 대한 본고의 대답은 '고전의

현대적 계승은 가능하게 노력하는 만큼 가능할 뿐이다.' 즉 시대적 의미를 새로 담아낼 수 있다고는 믿지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가공을 거쳐야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이 순간, 荀子가 『순자』의 「勸學」편에서 칭색이 쪽 풀에서 유래했음에도 쪽 풀의 푸른빛 보다 푸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본래의 것을 가공하는 인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이 떠오른다. 즉 관건은 어떻게 '가공'을 하여 현대적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인 것이다. 가공은 수식이 아니라 재생산이었던 것이다!

본고는 『소학』의 현대 아동교육에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¹⁾ 특히 인성교육을 중심테마로 설정하고 검토하려고 한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느 사회에서든 '교육'은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다. 평생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어린 시절의 교육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했다.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현대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기간에 해당되는 교육을 蒙學이라고 하였는데, 『천자문』 『격몽요결』 『동몽선습』 『소학』 등이 蒙學의 주 교재로 사용되어 왔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 『小學』이다. 여러 문헌들을 통해 볼 때, 『소학』은 단순히 유소년기의 교재에 그치지 않고 성년을 훌쩍 넘긴 노장층의 삶의 지침서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조선 중기에는 더욱 그러했다. 주목되는 지점은 무엇 때문에 『大學』에 대응되는 『小學』이 '소학동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선조 사대부들에게 애호되었으며, 『소학』이 조선사회의 생활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학』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그 의미는 어떤 지점에서 새롭게 바로잡힐까? 이것이 바로 본고가 살펴보려는 지점이다.

1) 본고는 '아동'에 대하여 누리과정의 적용되는 유치원 취학아동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아동은 대개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부터 사춘기전의 사람이지만,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해당된다. 따라서 대략 유치원생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가 대상이 된다"는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각각의 연령대와 교육정도에 따른 교과과정 내지 교육핵심이 확정되지 않으면 교육효과를 반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소학』은 '유치원 취학아동'을 期必하고 만들어진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후 논의를 더욱 보완하겠다.

물론 지역과 시대에 따른 사회적,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해, 교육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을 인간다운 존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정으로 간주되어 왔다²⁾. 예를 들면, 서양사상의 원류라 할 수 있는 플라톤은 인간발달에 있어 생의 초기에서부터의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상적이고 정의로운 국가 실현의 근원이 교육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하였으며³⁾ 동양사상의 정점에 있는 공자는 '오직 가르침만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인간은 서로 비슷하게 태어나지만 교육에 의해 달라진다(性相近習相遠)'는 말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더 강조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삶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아동기에서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⁵⁾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동기는 사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이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결정짓는 것이 교육을 통한 사회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회화는 인간이 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인간문명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교육은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사회화 방법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사회적 변화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어릴 때부터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화 과정 곧, 아동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교육이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 성과를 지향한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인생관 및 세계관의 형성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아동교육이 성과지상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근대화 이후 압축 성장을 이루어 온 한국에서 외형적 성취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교육 영역

2) 정규식, 『동서양 교육의 역사』, 학지사, 2011.

3) 장영란, 『플라톤의 교육-영혼을 변화시키는 힘』, 살림출판사, 2009.

4) 신창호, 『교육학개론』, 서현사, 2005.

5) 박용재, 『아이의 미래 초등교육이 전부다』, 베가북스, 2014.

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성과지상주의라는 이 기형적 교육 현실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인간다움을 위한 내면적 기초의 확립을 소홀히 한 채 아동교육의 단계에 서부터 경쟁과 비교, 성취에 대한 암묵적 강요가 그 단적인 예이다.

성과지상주의는 현대와 같은 과도한 경쟁체제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 『소학』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소학』은 과거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서민대중이 성과지상주의의 교육체제와 관련이 없었던 근대 이전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서로 여겨져 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다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하다. 『소학』이 조선조 일반백성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괄호를 치고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실 『소학』은 사대부들의 학습서로 등장했다. 즉 지적 엘리트들의 학습서였던 것이다. 학업의 기회가 동등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들의 학습을 조선조 일반백성들의 것이라고 범칭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다소 한계를 안고 있다. 그 성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잠시 미뤄두기로 하자. 여하간 우리는 『소학』이 수용된 이후로 조선시대 사대부 및 서민대중의 생활이 어떻게 변했으며, 서당과 같은 전통적 몽학기관에서 『소학』은 어떻게 교육되었고, 서당 밖의 일상생활에서 『소학』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인가를 살펴보면 성과지상주의로 치닫고 있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소학』은 중국 고대의 아동교육 기관인 小學校에서 가르치던 '小字之學'을 근원으로 하는데, 중국 송나라 시대의 朱子가 '小字之學'의 내용을 바탕으로 『禮記』, 『孝經』, 『論語』, 『孟子』 등에서 발췌한 내용을 결합해 편찬한 책이다. 따라서, 오늘날 『소학』이라고 지칭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자가 간행한 『소학』을 의미한다⁶⁾. 『소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고려

6) 안재오, 『교육공화국』, 얼과 알, 2010.

7) 윤인숙, 『조선 전기의 사람과 소학』, 역사비평사, 2016.

말이며 아동을 위한 교육서이자 수신서로 본격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건국 이후였다. 抑佛崇儒를 기치로 내걸고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은 유교 그 중에서도 특히, 주자의 성리학에 토대한 유교를 국가의 통치이념이자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으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유교이념에 충실한 사람으로 가르치고 교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주자의 『소학』을 조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널리 보급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아동을 위한 교육서를 통틀어서 蒙學이라고 지칭했는데⁸⁾, 『소학』을 비롯해 『童蒙先習』, 『擊蒙要訣』, 『訓蒙字會』, 『新增類合』 등이 그에 속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구체적 학문을 위한 교재의 성격을 띠었던 다른 교육서들과는 달리, 『소학』은 학문의 시작에 앞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리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었다.⁹⁾ 이에 조선에서 『소학』은 모든 것에 앞서 가장 먼저 습득해야 할 매체였고 초기의 『小學諺解』에서 중기의 『小學諸家集註』, 말기의 『海東小學』에 이르기까지 조선역사를 통틀어 국가 지배층이 다양한 주석서와 해설서의 간행 및 편찬을 통해서 보급하고자 노력했던 내적 수양서이자 인성 교육서였다¹⁰⁾. 『소학』에서는 아동교육의 덕목으로서 효, 우애, 공경, 예절 등에 관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비록 유교이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해도, 이념을 떠나 오늘날의 교육적 관점에서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며 오히려, 인성부재의 교육 현실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소학』의 수용과정에서 생성된 ‘수양론’적 성격을 확인하고, 이것이 현대 아동교육과의 접점을 어떤 점에서 만들어갈 수 있을지

8) 이만규, 『다시 읽는 조선 교육사』, 살림터, 2010.

9) 다만 『격몽요결』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 실제 『격몽요결』은 『소학』을 바탕으로 편찬한 것으로 입지, 지신, 독서, 사친, 거가, 접인, 처세 등등 초학자의 기본윤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는 『소학』의 기능과 『격몽요결』의 주된 내용은 일치한다. 아울러 『명심보감』의 경우도 본고가 주목하는 수양론과 맞닿아있다. 차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점검해준 심사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10) 한상덕, 『인성교육을 위한 동몽서 사자소학』, 솔봉출판사, 2004.

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학』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과 교육학 및 아동교육과의 관련성을 탐구해온 연구성과들에 많은 빛을 지고 있음을 고백치 않을 수 없다.¹¹⁾ 이들로부터 본고는 『소학』에 대한 치유적 독법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다소 거친 시론에 머물고 있다. 추후 후고를 통하여 다양한 한문고전의 아동교육과의 접점을 계속 찾아보고자 한다.

Ⅱ. 『小學』의 수용과 수양론으로의 定向

본 장에서는 『소학』이 조선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소학』이 수용되어 보급되고 신분과 계층을 넘어 조선사회 전체로 확산됨에 따라, 조선사회가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소학』이 어떠한 배경에서 수용되었고 그와 관련한 아동관의 변화는 어떠한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11) 『소학』에 대한 경학적, 사학적, 교육적 차원의 논의는 상당한 분량이 존재한다. 하나의 고전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하나의 사상적 거탑을 쌓아올린 것과 맞먹을 정도이다. 지금은 이와 관련한 논구를 일일이 제시하며 검토를 하지 않음을 양해 바란다. 특히 본고는 『소학』과 관련하여 교육현장이 고민을 담아냈던 성과들의 논의에 많은 빛을 지고 있다. 이를테면 김동인(1990)은 『효경』을 대체한 『소학』의 특징은 바로 주희가 언급했던 “習與智長, 化與心成”에 있음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른바 습관, 생활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었고, 최근의 임영빈(2017)은 <초등 도덕과교육에서의 소학 활용 방안_명륜을 중심으로>에서 ‘초등 과정’ ‘도덕교과’의 구체적인 단원에 소학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출함으로써, 『소학』의 구체적 실현과정을 점검하고 있었다. 즉 교육자적 입장에서 다루고 있었던 것이다. 본고는 생활화라는 점에서 김동인이 논의를 계승하되, ‘자기조절’이란 치유적 독법을 원용하여 자기주도적 차원의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임영빈의 논의와는 약간 각도를 달리하고 있다. 차후 더욱 본격적으로 『소학』 텍스트의 교육 현장 내 모색을 한데 모아 본고의 논의가 시론을 넘어선 문제제기 될 수 있을지를 재차 확인하고자 한다. 후고를 기약한다.

런 다음, 『소학』이 사회 전반에 어떻게 확산되면서 단순히 유교이념의 전파를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 수양을 위한 지침서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1. 『소학』의 수용과 조선사회의 변화: 유교문명화

『소학』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때는 고려 말이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이 건국된 이후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조선은 국초부터 유교를 국가의 이념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 채택하였다. 조선에서의 이상적 인간을 뜻하는 君子는 유교적 소양과 덕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였으며¹²⁾ 따라서, 그러한 인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일은 조선의 지배층에게 있어 최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였다¹³⁾. 『소학』에도 있는 것처럼, 입신양명하여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라고 생각했던 조선의 儒者들은 관리가 되어 남을 다스리기 전에 스스로 수양해서 덕을 기르는 것 즉 修己治人을 평생의 좌우명처럼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에 유교, 좀 더 구체적으로는 程朱學이 지배이데올로기로 작용했던 조선에서 아동을 위한 수신서이자 유교적 관점에서 세계와 인간의 삶을 규율하는 근본 원리와 이상에 대한 학습 및 함양을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이었던 주자의 『소학』은 대단히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소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직 자아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들에게 올바른 윤리관을 심어주는 데 있었다¹⁴⁾. 이때의 윤리관은 유교이념에 바탕한 人倫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학』은 아동으로 하여금 유교적 인륜에 대한 정신적 정립을 이루도록 이끄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¹⁵⁾. 주자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인간 본연의 존재적 진리이자 절대적

12)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3.

13) 금장태, 『유교사상과 한국사회』, 한국학술정보, 2008.

14) 유덕선, 『소학』, 흥문관, 2007.

15) 신창호, 『유교의 교육학 체계』,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2.

주체를 ‘心’이라 하였는데¹⁶⁾, 이 ‘心’을 보다 확고하게 인식하는 길이 인륜을 내면화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륜을 내면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주변의 작은 대상이나 일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모, 형제, 친구, 기타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면서 그들과 서로 공경하고 아끼며 도와야 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하며 공부는 그러한 이유를 알고 난 연후에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조선의 개국공신 중 한 사람인 權近 또한 『소학』의 통달을 강조하면서 먼저 『소학』을 읽고 난 연후에 다른 공부를 할 것이며 성균관에 입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소학』의 능통 여부를 우선적으로 알아본 후에 입교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고, 조선 전기 사림파의 대표자격인 金宏弼은 『소학』을 모든 학문의 기초인 동시에 인간교육의 절대적 원리라고 주장하였다. 조선 지배층의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소학』은 조선 초부터 향교, 서당, 서원을 비롯한 모든 유학교육 기관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과목으로 장려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이전시대의 지배적 이념이었던 불교를 탈피하고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천명한 최초의 국가였던 조선에서 새로운 이념의 채택은 인간의 사고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일이었기에¹⁷⁾ 그 만큼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로서는 건국 초기부터 백성들을 대상으로 유교 이념의 전파에 매진하였고 특히, 이전 시대의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동들을 유교적 이상국가의 실현과 유지를 위한 초석으로 간주하여 그들에 대한 유교 이념 교육에 집중하였다¹⁸⁾. 바로 이런 상황이 『소학』을 아동들을 위한 유교 교육서이자 수신서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한 것이다.

16) 방진희, 「주자 <소학>의 내용분석을 통한 교육방법 연구」,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7) 최석만, 『유교적 사회질서와 문화, 민주주의』,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6.

18) 권낙원, 손인수, 「한국의 미래교육 백년과 한국교육 백년사」, 『한국교육원대학교 한국교육 백년사 편찬위원회』, 2011.

2. 『소학』의 보급과 일상적 수양으로의 轉移: 개체의 주목

成宗이라는 諡號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16세기의 成宗대에는 조선사회의 거의 모든 시스템이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회체제의 정비와 안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곧 『소학』이다. 呂氏鄉約이 중국사회를 안정시킨 것처럼, 『소학』의 보급은 정주학적 세계관이 사회 전반에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소학』이 향촌사회에까지 보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성종대에 이르러 그동안 입신수단으로 읽혀졌던 『소학』은 사회개혁을 실천하는 수단으로까지 간주되었으며¹⁹⁾ 특히, 율곡 이이는 四書인 『大學』, 『論語』, 『孟子』, 『中庸』에 『小學』을 더하여 五書로 지칭하면서 배우는 자가 가장 먼저 읽어야 하는 책으로 명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소학』의 높은 가치를 인정하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소학』을 보다 더 널리 보급하기 위한 諺解類나 集註類 문헌들의 수집 및 간행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면, 양반 지배층을 넘어 모든 백성을 유교적 이념으로 교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소학』을 한글로 번역한 金安國의 『小學諺解』와 중국에서 전래된 小學 주석서들 간의 차이로 인해 혼란이 초래되자 이를 해소하고자 주석서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나름대로의 상세한 註說을 가미하여 편찬한 李珣의 『小學諸家集注』가 간행되었으며, 비록 그 연대와 작성자는 알 수 없으나, 주자의 『소학』이 『禮記』, 『孝經』, 『論語』, 『孟子』 등에서 발췌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서 아동이 실제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자의 『소학』에 수록된 내용 중 아동이 가장 익히기 쉽고 외우기 쉬우면 이해가 쉬운 것들을 골라 四字 형태로 정리한 『四字小學』이 편찬 보급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 외에도 해설서나 주석서의 편찬을 통한 『소학』의 활발한 보급은 조선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19세기 고종 때에는 朴在馨의 『海東小學』이

19) 김태완, 『경언, 왕의 공부』, 역사비평사, 2011.

발간되기도 하였다. 특히 『海東小學』은 사실상 그 이전까지의 조선 역사에서 보급되어 읽혀져 온 朱子の 『소학』과 그에 관한 해설서 및 주석서들을 총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立教, 明倫, 敬身, 稽古의 內篇과 嘉言, 善行 등의 外篇으로 이루어져 주자 『소학』의 구성 체계를 충실히 따르고 있으면서도,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모범이 될 만한 사례와 훌륭한 인물들의 말씀과 행실을 함께 담아냄으로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보다 부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소학』의 보급과 관련하여 주목할 사실은 『소학』이 비록 성리학을 창시하고 유교 이념을 총 집대성한 주자에 의해 편찬되어 유교적 윤리관의 확립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것²⁰⁾이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유교 이념 및 유교적 윤리관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 어릴 때부터 함양해야 할 내면적 태도와 자세를 제시함으로써 이념을 불문한 일상적 수양의 매체²¹⁾로 중시되었다는 사실이다. 아동의 교육과 수신이라는 측면에 보다 명확한 초점을 맞추고 살펴볼 때, 『소학』은 부모에 대한 효, 형제와의 우애, 친구와의 우애, 이웃과의 친교, 연장자에 대한 공경, 일상생활에서의 예절 등의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유교 이념에만 천착한 것이라기보다는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이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들이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소학』이 비록 표제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들이 아동기에 국한되지 않고 평생을 두고 되새겨야 할 삶의 지침서처럼 여겨졌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있어 『소학』은 유교 이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념을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도덕 또는 윤리의 교본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일상적인 자기 수양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교과서와도 같은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20) 문미옥, 류칠선, 「소학에 나타난 아동교육론」, 『아동학회지』 21(1), 한국아동학회, 2000.

21) 강신주, 『동양의 고전을 읽는다』, 휴머니스트, 2006.

3. 『소학』의 확산과 실천적 수양론의 대두: 실천윤리

『小學』을 아동교육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孝, 형제와의 友愛, 친구와의 友愛, 이웃과의 親交, 연장자에 대한 恭敬, 일상생활에서의 禮節 등에 관한 폭넓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주자는 『小學書題』에서 아동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익히도록 할 것으로 소위, 三節四道の 덕목, 灑掃, 應對, 進退, 愛親, 敬長, 隆師, 親友 등을 제시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학』이 아동들로 하여금 효, 우애, 친교, 공경, 일상예절 등에 관해 외우고 익혀 내면화하도록 하는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행동 방안들까지 제시²²⁾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학이 보급되고 확산되면서 쇄소지절(灑掃之節: 쓸고 닦고 하는 예절)과 같은 일상에서의 행동거지가 중시되었으며, 남명 조식이 퇴계 이황에게 ‘요즘의 선비라는 자들은 쇄소지절도 모르면서 性理를 말한다’고 일침을 가할 정도로까지 사림의 생활신조로 정착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소학』이 확산되면서 실천적 수양론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몇몇 예를 사자형태를 차용하여 제시해 보면, ‘새벽에는 반드시 부모보다 먼저 일어나 세수하고 반드시 양치질하라(晨必先起 必盥必漱), ‘부모께서 나를 부르시거든 빨리 대답하고 달려 나아가라(父母呼我 唯而趨進), ‘나갈 때는 반드시 부모님께 아뢰고 돌아오면 반드시 부모님을 뵈어라(出必告之 反必面之) 등과 같은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방안, ‘형이 의복이 없으면 아우가 반드시 드려라(兄無衣服 弟必獻之), ‘아우가 음식이 없거든 형이 반드시 주어라(弟無飲食 兄必與之), ‘한잔의 물이라도 형제간에 반드시 나누어 마셔라(一杯之水 必分而飲) 등과 같은 형제와의 우애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방안, ‘글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인의 행실을 도와라(以文會友 以友輔仁), ‘벗이 잘못이 있거든 충고하여 선으로 인도하라(朋友有過 忠告善導) 등과 같은 친구와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행동방안, ‘손님이

22) 윤여덕, 『마음에 담은 작은 학문』, 채운재, 2015.

찾아오거든 접대하기를 반드시 정성스럽게 하라(賓客來訪 接待必誠) 등과 같은 이웃과의 친교를 두텁게 하기 위한 행동방안, '어른의 앞에서는 나아가고 물러나기를 반드시 공손하게 하라(書冊狼藉 每必整頓), '나이가 많아 곱절이 되거든 아버지로 섬겨라(年長以倍 父以事之), '열살이 더 많으면 형으로 섬겨라(十年以長 兄以事之) 등과 같은 연장자에 대한 공경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방안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처음 문자를 익히거든 글자의 획을 바르게 써라(始習文字 字畫楷正), '책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든 그 때마다 항상 바르게 정돈하라(書冊狼藉 每必整頓), '소리모양은 반드시 조용하게 하며 머리모양은 반드시 곧게 하라(聲容必靜 頭容必直), '음식은 삼가 절제하고 언어는 공손히 하라(飲食慎節 言語恭遜) 등과 같이 일견 사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일상생활의 행동들까지 세세하게 제시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Ⅲ. 『小學』과 아동교육과의 만남: 治癒的 讀法の 모색

1. 『소학』이 아동교육에 주는 시사점: 修身의 의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小學』은 단순히 고대의 아동용 수신서라는 차원을 넘어 오늘날의 아동교육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학』은 인성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표본이 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의 모든 교육은 입시 위주의 성과지상주의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근대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그것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적 시도도 있어 왔으나 여전히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²³⁾. 입시 위주의 성과지상

23) 최관경, 최두진, 황시오,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교육목적관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25(3), 한국교육혁신학회, 2015.

주의는 오로지 구체적 수치로만 표시되는 결과에 매달리는 교육, 인간다운 인간을 지향하여 내면을 충실하게 하기 보다는 외적 지식으로만 가득 찬 인간을 양산하는 교육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생의 출발점인 아동기에서의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쳐 어릴 때부터 올바른 인성의 함양은 배제되고 오로지 지식의 축적과 그에 바탕한 외적 성과에만 매몰된 인간을 양산해내고 있다.

인성은 순간적인 결심이나 계기를 통해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의 초기부터 꾸준히 함양하고 연마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정신문화의 빈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아동교육 단계에서부터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식으로서의 학문의 세계에 들어서기에 앞서 인간다운 심성의 정립을 강조하면서 이를 아동기의 필수불가결한 교육과정으로 제시한 『소학』은 인성교육의 부재 또는 소홀로 인해 미래의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현대의 아동교육²⁴⁾에 중요한 교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소학』은 인간관계에 관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古수를 막론하고 인간관계는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간주돼 왔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자신을 둘러싼 타인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²⁵⁾.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으며, 인간이 삶에서 얼마나 충족감과 행복을 느끼는가의 여부도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 확립하고 유지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관계의 유형은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기타 타인들과의 관계 등으로 복잡다단하다. 그런데, 것처럼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타인들을 어떻게 상대하고, 타인들과 어떻게

24) 주건성, 『인성이 미래다』, 골드닷컴, 2016.

25) 홍일립, 『인간 본성의 역사』, 에피파니, 2017.

교유하며, 타인들과 어떤 식으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대의 아동교육뿐만 아니라 아동기 이후의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기를 불문하고 모든 단계에서의 교육이 지식과 외형적 결과에 치중하고 있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오늘날,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은 가정에 일임되어 있거나 성장과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체득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간과되게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연령대를 불문하고 한국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가 인간관계²⁶⁾라는 사실은 그것이 결코 가정이나 개인 자신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는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인성의 함양이 아동교육의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위한 자세와 태도의 함양 또한 아동기에서부터 중요한 교육과제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모에 대한 孝, 형제와의 友愛, 친구와의 友愛, 이웃과의 親交, 연장자에 대한 恭敬 등과 같이 『소학』에서 아동의 修身을 위한 필수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간관계에 관한 교육 내용들은 현대의 아동교육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소학』은 내적 함양에만 국한하지 않고 함양된 내용의 외적 표출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實踐躬行의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사실, 유교와 유교적 이념을 토대로 한 저술들에 대해서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있는데, 현실에서의 실천은 외면한 채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공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²⁷⁾이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고정관념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실리보다는 명분을 우선시하고 실행보다는 주장만을 내세움으로써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백성의 삶을 허위에 속박당하

26) 권수영, 『한국인의 관계 심리학』, 살림, 2007.

27) 김용석, 『한국의 교양을 읽는다』, 휴머니스트, 2003.

도록 만든 조선 지배층의 행태는 무수하게 많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그들이 최고의 가치로 숭상했던 유교적 이념도 현실과는 괴리된 탁상공론이라는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그런데, 『소학』은 언(言)의 내면화와 행(行)의 구체화를 함께 지향함으로써²⁸⁾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있다. 『해동소학』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소학』에서는 인성 함양, 올바른 인간관계의 정립 등과 관련하여 실천을 위한 구체적 행동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성이나 인간관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떠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가치가 있는 행동 방안들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 방안들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다소 무리한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해도 유교적 이념이 지배했던 시대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아동들에게는 익힌 것을 행하고 행함으로써 다시 익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오늘날 아동들을 언행일치를 올바로 실천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보다는 지식의 학습자, 유희적 또는 신체적 활동의 수혜자로만 이끌고 있는 아동교육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소학』이 지닌 실천윤리적 성격은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2. 『소학』의 교육내용과 현대 아동교육의 거리: 綱目과 節目

李滉의 『聖學十圖』에는 제3도에 「小學圖」를 안배하여 '소학'의 내용을 도해해 제시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학』의 내용을 크게 3단으로 구성하였다. 제1단(상단)은 立教, 明倫, 敬身으로 하고, 제2단(중단)은 稽古, 제3단(하단)은 嘉言, 善行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圖解되어 있다.

28) 김봉규, 『조선의 선비들, 인문학을 말하다』, 행복환 미래, 2013.

■ 제1단

立教:	立胎育保養之教 立小大始終之教 立三物四術之教 立師弟授受之教
明倫:	明父子之親 明君臣之義 明夫婦之別 明長幼之序 明朋友之交
敬身: 明心術之要	明威儀之則 明衣服之制 明飲食之節

■ 제2단

稽古:	立教 明倫 敬身
-----	----------------

■ 제3단

嘉言:	廣立教 廣明倫 廣敬身
善行:	實立教 實明倫 實敬身

『소학』은 내편 4편과 외편 2편으로 나뉘고 있는 바, 그 순서를 좇되 이들 사이의 관계를 도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편의 3편인 立教, 明倫, 敬身을 제1단에, 稽古를 2단에 안배하여서, 앞의 3편이 '소학'의 기본 근거

이자 기초임을 밝히고 있다. '계고'는 성현의 언행을 실례로 들어서 앞서 제시한 윤리들이 실행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입교, 명륜, 경신을 통해 기본 윤리를 실천한 뒤, 이를 옛 성현의 실제 언행에서 확인한 뒤, 다시 이를 송대 사대부들의 언행을 통해 완전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御制小學序」에는 이렇게 말했다.

“입교, 명륜, 경신, 이 세 가지는 안이요, 뿌리다. 다음 계고는 지난 행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가언, 선행, 이 두 가지는 밖이요, 가지의 끝이다.”²⁹⁾

이로부터 재차 확인하게 되는 것은 '소학'의 기본은 입교, 명륜, 경신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중요하다. 성현의 언행들(송대 사대부들의 것을 포함하여)은 자신의 실천이 타당한지를 조회하여 보는 기준이지, 그것을 되뇌는 것으로 소학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그간 『소학』의 교육적 차원을 점검해온 논의들이 제1단의 3강목에 치중해왔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1단의 강목들을 다시 살펴볼 때, 이 부분은 몇 가지 점에서 지금의 아동교육이 원하는 덕목들과 맞닿아있음이 눈에 들어온다. 먼저 1단의 강목을 다시 한 번 들고 간단하게 우리말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시한다.

立教: 立胎育保養之教	태교와 양육
立小大始終之教	대소와 종시
立三物四術之教	삼물과 사술
立師弟授受之教	사제간 수수
明倫: 明父子之親	부모와 자식
明君臣之義	임금과 신하
明夫婦之別	남편과 아내
明長幼之序	어른과 아이
明朋友之交	친구 사이
敬身: 明心術之要	마음의 씬씀이

29) 「御制小學序」, “曰立教, 曰明倫, 曰敬身, 茲三者, 內也, 本也. 次言稽古, 所以往行而證之也. 曰嘉言, 曰善行, 茲二者, 外也, 末也.”

明威儀之則	몸가짐의 규정
明衣服之制	옷차림의 제도
明飲食之節	음식의 예의

위에서 간략하게 보듯이, 1단의 3강목은 일상의 기본생활과 관련된 실천윤리들이다. 간혹, '君臣有義' '夫婦有別' 등과 같이 현대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윤리도 제시되어 있지만,³⁰⁾ 많은 부분은 사회의 관계망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간관계들에 대한 기초적 규정들이다. 이 강목들을 다음에서 아동교육을 위하여 제시한 기본생활습관 교육내용³¹⁾과 견주어 보도록 하자.

30) 박연호는 수년간 『소학』 강독한 뒤, 교육대학 학생들에게 '소학'의 윤리에 대하여 비평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에 기반하여 소학의 현대적 계승이 매우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한다. 소학을 둘러싼 외적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내용에 있어서 '오류' 가운데 부부유별은 포기되어야 하며, 군신유의는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에 맞게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신봉으로 바뀌어야 하며, 부자유친은 자식이 자유롭고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하고 살아가는 것을 복돋는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희의 『소학』이나, 박재형의 『해동소학』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근대적 버전'의 소학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논의는 고전을 연구하는 하나의 경향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우리는 한문고전을 마주하는 순간, 이들에 의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것처럼, 늘 한문고전(작자이든, 텍스트이든)의 측에 서서, 그 안의 논의를 두둔하고 강조하는 경향을 가지곤 했었다. 가능하면 긍정적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측면에서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된다. 물론 박연호의 관점은 현대적 되살림의 측면에 있고, 그 또한 고전의 무용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의 한문고전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고 계속 번역하고 소개해야 하는 도상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의 문제제기는 다소 낯설게 다가오기도 한다. 고전의 충실한 재현과 현대적 되살림, 어느 하나도 소홀할 수 없는 지금의 학자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박연호, 「소학의 현대적 계승은 가능한가」, 『한국계보연구』 6, 2016).

31) 모용희, 「소학을 통해 본 유아 인성교육 학습 모형 도출 연구」, 원광대 박사논문, 2014. 이 논문의 21면에 수록된 <유치원 교육과정·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에 포함된 기본생활습관 교육내용>을 제수록함.

구분	기본생활습관 교육내용
교육과정	1차_1969 청결/의생활/문과 창을 바로 여닫고 환기하기/바른 자세/식습관/휴식하기/배변습관/바른 잠자기/안전/자립/끝까지 하기/생각하여 행하기/책임/규율 있는 생활/절약/순종/친절/예절/약속/규칙/동식물 가꾸기/시간 지키기/귀담아 듣기/바른 말 고운 말 쓰기
	2차_1979 약속/질서와 규칙/물건 소중히 다루기/예절/고운 말 쓰기/주의 깊게 듣기/의생활/청결/식생활/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배설 습관/안전
	3차_1981 청결/의생활/식생활/안전/감정이나 행동 조절/신체적 육구 조절/규칙적인 생활습관/정리정돈/자립/예절/자기 물건 간수/절약/약속/질서와 규칙
	4차_1987 청결/식생활/안전/주의 깊게 듣기/절제/규칙적인 생활/정리정돈/자립/절약/예절/하고 싶은 일 스스로 선택하고 시도/시작한 활동 끝까지 해내기
	5차_1992 청결/규칙적인 생활/휴식/의생활/식생활/안전/예절/질서/절제/적절한 감정표현/바른 태도로 듣고 말하기/동식물 보호하기
	6차_1998 청결/의생활/식생활/안전/예절/질서/절약/감정과 육구 조절/자기 일 계획하고 실천/공공규칙/협력/바른 태도로 듣고 말하기
	2007개정 청결/식생활/안전/감정조절/예절/질서와 규칙/협력/바른 태도로 듣고 말하기/생명체와 자연환경 보호
표준보육과정_2007	청결/식생활/배설습관/의생활/건강생활/안전/예절/질서/절약
누리과정_2013	질서/배려, 협력 등의 실천위주의 기본생활습관/시간을 정해 놓고 집중 지도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시/생활하는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서 통합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짐/각 영역의 내용 뿐 아니라 성격 및 목표에도 이를 전반적으로 반영

위 표에서 일견하듯이, 아동교육의 핵심은 일상적 생활습관의 정립과 지속성의 구비이다. 아울러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나아가 동식물 등과 같은 생명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확인할 수 있다. 아동교육과 관련하여 시기마다 요구되는 덕목에 차이는 있지만, 큰 줄기에서는 대동소이한 듯하다. 여기서 그 차이는 잠시 차치하고, 동일한 줄기에 대해서 주목해보자. 그럴 때 우리는 앞서의 '소학' 1단 3강목 가운데에서 아동교육의 교육내용 사이에

유사한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경신의 항목 4가지는 거의 모두 일치하고, 명륜의 '朋友' '長幼'가 해당된다. 명륜의 경우, 아동의 성장 생애주기에 따라 적용될 윤리들, 이를테면 '군신' '부부' '부자' 등을 제외하면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들 또한 국가와의 관계, 남녀간 양성평등 교육, 부모자식 사이의 순종의 윤리 등을 생각하면, 약간 변용된 방식으로 교육내용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입교의 경우, '소학'의 교육자의 입장에서 가져야할 원칙의 측면에 더 가깝다는 점에서, 다소 논의로 할 수 있을 듯하다.

강목과 덕목 사이의 유사점만으로 『소학』의 내용과 아동교육의 교육내용을 무조건 같은 수위에서 논의하는 데에는 많은 괄호가 필요하다. 현대 아동교육의 목표와 『소학』이 꿈꾸는 교육이상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간적 간극이 너무 크다. 같은 공간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도 한 세대를 넘어서 같은 윤리를 요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간혹 전통교육을 극기교육으로 환원하는 세대를 보면, 그 폐단과 後果에 두려워지기도 한다. 일찍부터 교조화된 전통교육에 노출된 아동들이 뒷날 전통적 지혜를 두려워하거나 꺼리게 되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닐까? 하다 못해 대학에서 한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전통적 생활방식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 그 방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현대 아동교육의 교육내용과 『소학』 안에 들어있는 교육내용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소학』의 현대적 계승의 근거를 일정부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이제 『소학』을 어떻게 읽어낼 때 교육적 효과를 성취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자.

3. 『소학』의 치유적 독법: 倫理를 넘어선 지점의 확보

『소학』을 활용한 아동의 인성교육은 주로 윤리적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이를테면 아동교육의 현장에서 『소학』의 원전을 강독해줄 수 없으므로, 내용과 관련 있는 부분을 이야기식으로 들려주고, 그와 관련 있는 전래동화를 읽어준 뒤, 교훈적 윤리를 확인하는 방식의 교학이 이뤄졌다.³²⁾

이는 그간 아동교육현장에서 이뤄져온 방식이었다. 특히 한문 원문을 직접 강독할 수 없는 현실적 제한에 기인하며, 아울러 전통의 지혜를 주로 忠孝와 같은 윤리적 덕목에서 찾고 있는 저간의 상황을 떠올려보면, 그 방법은 당연하게 보인다. 어쩌면 그 결과 이른바 ‘인성교육’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³²⁾ 그러나 지금의 인성교육의 내용을 충효와 같은 이념교육이 자리잡고 있다고 해서 인성교육을 모두 폐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제기는 이후 인성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는 지점을 상상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로 보는 것이 온당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현재 이뤄지는 교육의 지점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수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자가 한문원전을 해독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고, 전통의 지혜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교육현장에서 과연 전통의 지혜를 굳이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고, 더 나아가 현대적 적용 혹은 되살림이 가능한가 하는 회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육대상인 아동들이 그런 학습을 원할까 하는 의문도 있다. 흔히 自發性을 기초로 할 때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할 때, 많은 경우 교육자나 보호자의 시각 안에 갇히지 쉬운 아동들의 경우, 이들의 주체적 의지와 학습 욕구를 어디까지 용인하고, 어떤 방향으로 유도할 것인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 예시와 같은 교육현장 및 학자들의 고뇌가 가진 진정성을 인정하는 것은 지극히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른바 『소학』의 경우, 다른 고전 텍스트와 달리 상대적으로 젊은(어린)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뤄진 텍스트임과 동시에, 굳이 어린이에 한정되지 않고 학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

32) 심지선은 『소학』을 활용한 교육방안을 구성하면서 『소학』의 원문과 관련 이야기를 접목하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을 취하였다. 사실 아동교육에 『소학』에 원용할 경우, 지극히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인다. 예컨대 「소학을 활용한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 습득에 미치는 영향」(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14) p.45에 나오는 표7 <이야기나누기 활동안의 예>가 그러하다.

33) 함영기, 「인성교육을 넘어 시민성 교육으로」, 월뉴스, 2017년 2월 4일자.

초적인 학습수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즉 무조건으로 어린아이를 위한 문헌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아울러 아동은 성인으로 자랄 가능성의 씨앗을 비록 강도나 심도에 있어서 덜 성숙되었을 뿐이지,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고 있음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본고는 '인성'이란 인격적 성장을 뜻하는 말로 再定義를 하고, 인격적 성장을 위한 학습서로서 소학의 위치를 다시 비정하고자 한다.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자질과 학습된 역량에 의거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인격을 추구하고 완성해나간다. 즉 실존하는 사람만큼이나 다양한 인격이 존재하며, 교육자는 이들이 각자의 인격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각자 인격적 성장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나가는가, 자신을 가로막는 상처들, 장애들에 대하여 어떻게 스스로 치유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가이다. 이렇게 특정한 텍스트를 치유의 관점에서 읽어가면서 성장해나가려는 것, 이 독법을 우리는 치유적 독법으로 부르하고자 한다. 물론 치유의 전제는 상처다. 상처가 있어야 치유를 하리라. 그러나 치유가 단순히 對症的 차원의 치료를 넘어서 인격적 성숙 및 성장을 지향하는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소학』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내용이 개인의 수양론과 닿아있다는 점에서 치유적 독법의 모색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우리는 다음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추측하건대, 이런 방식의 독법은 차후 교육 현장에서 아동의 자존감을 살리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이 지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문고전 속 윤리가 일반적으로 주입되는 단계를 넘어, 아동이 스스로 자존감 확보를 위한 주체적 학습을 하도록 추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은 시론에 지나지 않지만, 이 '자존감의 성취'야말로 이른바 '인성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소학』은 자기조절을 통한 자아성취와 인간관계 정립을 통한 사회화를 통해 자존감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예문을 들고 치유적 독법으로 읽어보도록 한다.

■ 자기조절: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여 나를 조절하라

“군자는 생각할 것이 아홉 가지가 있다. 눈으로 볼 때에는 분명하게 볼 것을 생각하고 귀로 들을 때에는 똑똑히 들을 것을 생각하고, 얼굴빛은 항상 온화하게 가질 것을 생각하고, 몸가짐은 반듯하게 공손할 것을 생각하고, 말할 때는 항상 충직하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일은 늘 경건하게 다룰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반드시 선생에게 물어볼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반드시 뒷날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익이 될 것을 보면 의로운 것인지를 생각하라.”³⁴⁾

『소학』 「敬身」편에 나오는 문장이다. 이는 ‘군자’, 즉 유가를 학습했던 사람들이 목표로 삼았던 이상적 인간형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무려 아홉 가지로 요약되어 있는데, 각각 흥미로운 지점을 다루고 있다. ‘군자’라는 인간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조심스럽게 알려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교육을 통해 도착할 지점에 대한 아홉 가지 과정으로 이해해도 좋으리라.

하나의 상상을 같이 해보자. 이 글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썼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웬지 이 글은 너무도 정제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허나 이런 定言이 거론되기 이전까지 작자는 많은 고뇌와 상처의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는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그대로 봐주기보다는 저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 讒陷과 모욕을 당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들어주는 것도 저들은 듣고 싶은 것만을 들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외면했을 것이다. 그로 인하여 나의 말과 나의 모습은 어느새 저들의 눈에는 저들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에 의해서 塑造된 ‘가상’으로만 존재하게 되었다. 이를 대한 나는 낮빛은 거칠어졌고, 행동도 과격해졌으며, 말도 함부로 터져 나왔다.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오히려 더욱 난감해지는 일들이 발생했고, 누군가에게도 묻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던 나는 더욱더 곤란한 지경에 빠져들었다. 사실 시작

34) 『論語』 「季氏」, “君子有九思, 視思明, 聽思聰, 色思溫, 貌思恭, 言思忠, 事思敬, 疑思問, 忿思難, 見得思義.”

은 내가 아니었다. 저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다. 결국 나는 어떤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대고, 수없이 상처를 받아 안은 채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나의 자존은 더욱더 추락하였고, 존재감마저 희미해져 버렸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말다니! 어쩌면 그 원인은 나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나를 이렇게 봐주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저들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지 않았던 데에 혹시 내가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니었을까? 혹시 언젠가 내가 뭔가 내게 이익을 주는 일을 보았을 때 그것이 왜 나에게 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달려들었던 것은 아닐까? 한 번 더 나를 성찰해본다.

'나'와 '저'를 상징하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찬찬히 되짚어보니, 위의 말은 무심한 듯 던져진 定言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이겨가는 과정에서 자기조절을 통해 자아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었고, 그 고뇌를 행간에 살짝 감추어놓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에서 되짚어보았던 과정들은 그저 주관적 상상만은 아니었다. 가능하면 주희의 해석에 근거하여 그 속내를 읽어냈다. 따라서 우리의 상상은 전혀 근거 없는 망상은 아니었으리라. 또한 '나'와 '저'의 입장을 바꾸어서 읽으면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스스로 반성하는 리포트가 될 수도 있다. 이 대목은 흔히 '九容'으로 알려진 『예기』 「玉藻」의 문장과 같이 읽으면, 내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근신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참으로 절실하게 느껴진다. '구용' 또한 『소학』 「敬身」에 수록되어 있다.³⁵⁾

■ 관계 정립: 조건 없는 사귀, 덕을 보라

“나이를 藉勢하지 않고, 부귀를 자세하지 않으며, 형제를 자세하지 않고 벗과 벗하는 것이다. 그 덕성을 벗하는 것이지, 자세하는 것을 두고서 벗해서는 안 된다.”³⁶⁾

35) 『禮記』 「玉藻」, “君子之容, 舒遲, 見所尊者, 齊莊皆切速. 足容重, 手容恭, 目容端, 口容止, 聲容靜, 頭容直, 氣容肅, 立容德, 色容莊.”

36) 『孟子』 「萬章 下」, “不挾長, 不挾貴, 不挾兄弟, 而友友也. 友其德也, 不可以有挾也.”

『소학』 「明倫」에 나오는 문장이다. 위 내용은 取友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친구를 사귀므로써 사회화의 첫걸음 떼기 시작한다. 아동들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에게 공부와 함께 친구는 가장 중요한 '문제거리'이다. 하나의 무리 속에서 서로 다투기도 할 뿐 아니라, 무리에 들지 못하여 결국 따돌림과 같은 강제적 탈사회화와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

이 또한 앞서 우리가 취했던 독법을 원용하여 다시 읽어가도록 해보자. 나를 따돌렸던 사람들을 생각해본다. 언젠가 저들은 나를 같은 나이가 아니라고 별도로 취급을 했었고, 내가 가난하다고 하여서 따돌렸으며, 나에게 형이나 아우가 없고, 의지할 곳이 없음을 알고서 함부로 대하였다. 사실 저들이 이른바 친구를 만드는 원칙은 분명했다. 비슷한 나이여야 했고, 비슷하거나 더 나은 부귀를 갖추었어야 하며, 위세를 빌려올 만한 형제가 있어야 되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은 모두 외부의 환경들이다. 즉 내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젊은 사람들은 나를 따돌릴 것이며, 나의 사업이 불운하여 부귀를 잃고 나면 나 몰라라 할 것이었으며, 나의 형제들이 모두 사라지고나면 언제든지 나를 버릴 것이었다. 결국 누군가와 사귄 때에, 當者が 갖추고 있는 것-그것을 '덕성'으로 통칭하도록 하자-을 근본에 두지 않으면, 결국 지속되기가 어렵다. 이른바 외부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들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의 內質도 변화하겠지만 근본적인 덕성의 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이다. 간혹 외계의 자극이나 내면의 혼란으로 선한 자질이 도드라지지 않은 적도 있지만, 선한 자질은 언젠가 조건이 성숙되면 밖으로 빛을 발할 것이었다. 그래서 取友는 무언가 藉勢해서는 안 되며, 상대가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즉 그 덕성을 벗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조건 있는 사귀들을 반성하고, 사귀의 근원이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문장이라고 하겠다. 저들이 나를 만날 때 어디에 자세했던가를 비판하는 동시에,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벗들과 사귄 때 어디에 자세했던가를 살펴볼 일인 것이다. 이상의 문장읽기도 또한 『소학』의 집해주에 의거한 것이다. 다만 우리가 주의하고자 했던 것은 주석의 훈고나

의리에 기대면서도, '나'와 '저'의 상처를 상상하면서, 지금의 조건적 관계와는 다른 지점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다. 비록 제한된 논의에 불과하지만, 『소학』에 인용된 문장들에 대하여 치유적 독법을 시도하여,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면서 자존감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소학』의 내용을 더욱 체계적으로 읽을 여유가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 고전 주석서에 의지하여 읽어내면서도 치유적 독법으로 읽어내려면 여전히 주관적 상상에 의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비자』에서 꼬끼리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죽은 꼬끼리뻘을 보고 꼬끼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고민하면서 꼬끼리를 생각해내듯이, 『소학』의 글자들을 단서로 하여 『소학』이 현대 아동들의 삶에 어떤 꼬끼리로 나타날 수 있을지를 想象해 보는 것은 또 하나의 행복한 여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IV. 결론을 대신하여 : 『소학』을 통한 인성교육의 가능성

『소학』은 사실상 잊힌 문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말의 격동과 망국, 식민지 체제로의 전락은 그 중요한 원인이 조선을 지배한 유교이념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인식의 강화는 유교이념의 교육과 확산을 목적으로 했던 문헌들이 현실의 삶과는 동떨어진 탁상공론으로 치부되어 배척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서양식 제도와 문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근대화, 산업화의 실현이 지상 과제가 되면서 근대이전의 유교 이념과 그 결과물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거부감은 더욱 더 심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든 조선에서 저술된 것이든 유교 이념을 내포한 문헌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

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도 전에 고리타분한 구시대적 유산으로 평가 절하되어 별다른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심지어 과도한 폄하와 비난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다. 『소학』 또한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처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소학』의 내용을 탐색하게 되면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전근대의 유교 이념서들 중 하나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소학』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까지는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유교이념의 굴레에 갇히도록 만듦으로써 평생을 두고 용이하게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한 조선 지배층의 수단이었다는 부정적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소학』은 한편으로는 유교이념에 천착하여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하고 지나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나 아동의 교육과 수신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놓고 본다면 오늘날에도 가치와 의미를 지닐 수 있는 탈이념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었다. 아동들에게 학문의 세계에 입문하기에 앞서 부모에 대한 효, 형제와의 우애, 친구와의 우애, 연장자에 대한 공경, 일상생활의 예절 과 같은 덕목들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먼저 확립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소학』은 오늘날 인성교육의 부재로 인한 폐해가 주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에 커다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더불어, 『소학』은 그러한 덕목들을 단순히 이론적으로 전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과 실용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학』에 대해서는 구시대적 질서와 지배체제에 충실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유교 입문서라는 선입관을 배제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학』의 내용을 아동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관찰하고 음미해 본다면 그것이 유교이념에 매몰된 전근대적인 문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념과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리매김하게 위해 내면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들을 담아내고 있는 인성 교육서이자 실천적 수양서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소학』이 조선시대에 아동을 주된 대상으로 하면서도 연령과 신분에 관계없이 일생에 걸쳐

익히고 되새겨야 할 문헌으로 간주되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소학』은 아동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내적 수양과 충만에 기여하는 문헌으로서의 가치도 지닐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소학』에 대한 보다 상세한 탐색과 고찰을 토대로 오늘날의 아동들에게도 소중할 수 있는 내용을 발췌하고 이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현대 아동교육의 내용으로 접목시킨다면 매우 유용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사회 구성원들의 인성 부재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과 해결을 모색하는 유효한 출발점으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하나의 사실을 다시 확인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인성은 고원한 이념이나 아득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 누구나 갖고 있는 각각의 존엄한 모습이요 성격이다. 이는 아동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저들은 비록 미성숙하였지만, 저들이 갖고 있는 모습과 인성은 각각 하나가 저마다의 하늘이요, 땅이다. 이제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고 싶은 것을 알려주는 일방통행의 방식을 넘어서서, 아동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배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식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교육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하여 『소학』과 같은 고전텍스트에 대한 치유적 독법 시도는 하나의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³⁷⁾ 그리하여 우리는 『소학』에서 ‘금지’를 넘어서

37) 우리의 논의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었다. 치유하려면 병증(장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이 부분은 심사자가 지적해준 것이다.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특정한 병증에 대하여 어떻게 치유 혹은 치료할 것인가, 이것이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안을 마련할 것이다. 본고는 일반적 훈육을 넘어서 자기주도적 학습으로서의 치유를 거론했지만, 과연 아이들은 이렇게 학습하려고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생각은 사실 또렷하지 않았었다. 다만 『소학』의 존재자체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소학』의 내용을 학습시켜, 이를 활용한 자기학습을 유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직은 『소학』이란 텍스트가 아이들과의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이다. 텍스트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과 동시에 텍스트를 더욱 친근하게 만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치유'를 읽어내고자 하였다. 사실 『소학』 속의 定言들은 대부분 명제 형식으로 주어지지만, 그 내실인즉슨 무엇을 어떻게 마주하든 진심을 다하여 보는 과정에서 획득된 것들이다. 다시 말해, 많은 경우 글을 지은 사람들은 수많은 상처를 겪으면서 고민하며 자신의 경험과 마음을 넣어 정리해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잔잔하고 차분한 定言의 어조 아래에 흐르고 있는 눈물과 상처의 아픔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시론에 불과하다. 많은 제한을 갖고 있으며, 의미 부여에도 많은 괄호를 안고 있다. 앞으로 더욱 풍부한 학문적 논의를 통하여 더욱 성숙해지기를 기대해보며, 본고도 후고를 준비하도록 하고자 한다.

〈參考 文獻〉

『小學集注增解』

『論語』

『孟子』

『禮記』

- 강신주, 『동양의 고전을 읽는다』, 서울: 휴머니스트, 2006.
- 권낙원, 손인수, 『한국의 미래교육 백년과 한국교육 백년사』,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육 백년사 편찬위원회, 2011.
- 권수영, 『한국인의 관계 심리학』, 경기: 살림, 2007.
- 금장태, 『유교사상과 한국사회』,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
- 김동인, 「아동용 교재로서의 『효경』과 『소학』」, 『교육사학연구』 3권, 교육사학회, 1990.
- 김미라, 「소학을 통해 본 유아 인성교육 학습모형 도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권 4호, 미래유아교육학회, 2011.
- 김봉규, 『조선의 선비들, 인문학을 말하다』, 서울: 행복한 미래, 2013.
- 김수연, 「『이생규장전』의 육망과 치유적 독법」, 『문학치료연구』 18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 김용석, 『한국의 교양을 읽는다』, 서울: 휴머니스트, 2003.
- 김태완, 『경연, 왕의 공부』, 경기: 역사비평사, 2011.
- 류경희, 「통합적 유아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과 창의적 사고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제21권 4호,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2017.
- 모용희, 「소학을 통해본 유아 인성교육 학습모형 도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문미옥, 류칠선, 「소학에 나타난 아동교육론」, 『아동학회지』 제21권 1호, 한국아동학회, 2000.
- 박리나, 황해익, 「유아인성 및 인성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과 과제」, 『유아교육연구』 제 37권 4호, 한국유아교육학회, 2017.

- 박연호, 「소학의 현대적 계승은 가능한가」, 『한국계보학연구』 6권, 한국계보연구회, 2016.
- 박용재, 『아이의 미래 초등교육이 전부다』, 서울: 베가북스, 2014.
- 방진희, 「주자 『소학』의 내용분석을 통한 교육방법 연구」,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성백효, 『해동소학』,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6.
- 신창호, 『교육학개론』, 경기: 서현사, 2005.
- 신창호, 『유교의 교육학 체계』,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2.
- 심지선, 「『소학』을 활용한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 습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안재오, 『교육공화국』, 서울: 열과 알, 2010.
- 유덕선, 『소학』, 서울: 홍문관, 2007.
- 윤여덕, 『마음에 담는 작은 학문』, 서울: 채운재, 2015.
- 윤인숙, 『조선 전기의 사림과 소학』, 경기: 역사비평사, 2016.
- 이만규, 『다시 읽는 조선 교육사』, 서울: 살림터, 2010.
- 임영빈, 「초등도덕교육에서의 『소학』 활용 방안: ‘명륜’을 중심으로」,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7.
- 장영란, 『플라톤의 교육 -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 경기: 살림출판사, 2009.
- 정규식, 『동서양 교육의 역사』, 서울: 학지사, 2011.
- 주건성, 『인성이 미래다』, 서울: 골드닷컴, 2016.
- 최관경, 최두진, 황시오,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교육목적관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제25권 3호,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2015.
- 최석만, 『유교적 사회질서와 문화, 민주주의』,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6.
-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서울: 예문서원, 2003.
- 한상덕, 『인성교육을 위한 동몽서 사자소학』, 경남: 솔봉출판사, 2004.
- 함영기, 「인성교육을 넘어 시민성 교육으로」, 월뉴스, 2017.
- 홍일립, 『인간 본성의 역사』, 서울: 에피파니, 2017.

Abstract

Ideas of Discipline in 『Sohak』 and Pursuit for the Healing Reading of those Ideas -Focusing on child education-

Jun Yeon-woo*

This study started with particular questions. Is a modern succession of classics possible? If so, how can the succession be made?. Based on these questions, the study put its purpose on determining which points of 『Sohak』 are applicable to modern child education, especially in relation to personal character.

The acceptance of 『Sohak』 in Joseon had something to do with the nation's introduction or development of Confucian civilization. In Joseon, specifically, intellectuals employed 『Sohak』 as disciplinary guidelines for daily life and, thereon, began to put their lenses on the lives of individuals that were members of society as a whole. Since then, people of the country drew out essential ideas of practical discipline from 『Sohak』, and the ideas became the very basis of practical ethics. This implies that there could be some points where 『Sohak』 and modern child education are associated with each other.

Today, child education often puts its first priority on leading children to settle socially desirable basic habits in their life. This is why 『Sohak』 as a classic literature on discipline may be now given a new meaning, for the literature is potentially in harmony with modern child education. The contents of 『Sohak』, especially those of its two sections like 「Gyeongsin」 and 「Myeongryun」 have much in common with contents related to basic life that are provided by modern child education. In this sense, it is time to read 『Sohak』 in a different way other than before. So far, 『Sohak』 has usually been read for the purpose of extracting ethical ideas. But now, a new different reading of the classic literature is needed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readers' establishment of self-esteem. The new reading is often referred to as 'healing reading', by which this study

* Professor of Yeungjin Cyber College. / mhsy6867@hanmail.net

could reach a conclusion that 『Sohak』 provides critical points which emphasize the establishment of self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n the basis of self-regulation is the key to socialization. However, those points are still in the stage of discussion. Further research should be made, this study hopes.

【Key words】 Sohak, ideas of discipline, healing reading, self-esteem, self-regulation, establishment of relations.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완료일 : 12월 02일, 게재확정일 : 12월 17일